



제목	The Land of Ionia: Society and Economy in the Archaic Period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Wiley-Blackwell
발행일	2010. 3. 15.
저자	Alan M. Greaves
출판국가	영국
페이지수	286
ISBN 또는 ISSN	978-1405199001

**내용 요약**

저자는 독일과 터키의 학자들과의 연구 교류를 통해 이오니아와 관련된 지난 한 세기의 고고학 연구를 통합하여 이를 토대로 더 큰 지중해 세계를 이해하고 당시 도시 및 사람들에 대해 경관, 경제, 도시, 식민지화, 전쟁, 문화 및 예술 등 주제별로 기술함으로써 고대 이오니아의 재조명하고 있다.

이오니아는 히타이트 제국 시절인 기원전 1500년 이전부터 동부 메소포타미아의 선진 문명을 받아들이던 중심지였다. 특히 기원전 6세기에 페르시아가 소아시아 지방으로 진출하자 이오니아 지방은 페르시아와 그리스 세계 사이의 교역과 문화 교류를 담당하는 전초기지가 되었고, 동방의 선진 문명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오니아의 지식인들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상을 싹틔우게 된 것이다. 특히 예술 분야에서는 이오니아 양식이 기원전 7세기 초부터 소아시아의 에게 해 연안에 거주하던 이오니아인 사이에서 발달하여, 기원전 6세기 이후 아테네를 비롯해서 그리스 전역에 전파되었다. 도리스 양식이 간소하고 중후하며 남성적인 데 반하여, 이오니아 양식은 오리엔트 세계의 영향을 받아서 여성적인 경쾌함과 우아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를테면, 건축에서는 대접받침 장식에 우아한 소용돌이 모양을 받아들여 날씬한 기둥에는 주춧돌을 얹히고, 대들보를 부조로 장식하는 등 도리스 양식과는 크게 대조를 이룬다. 조각에서는 여성의 섬세하고도 아름다운 의상 표현에서 특징을 엿볼 수 있다.